

# 김영록 지사 “전남광주특별시, 글로벌 문화수도로”

### 아시아문화전당서 행정통합 계기 외연 확대 비전 제시 금남로 예술복합단지 ‘더 그레이트 컬처 스트리트’ 조성 광주 중심 나주·목포·여수·순천·광양 광역 문화권 연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전남을 ‘글로벌 문화수도’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행정통합을 계기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광주에 한정하지 않고 전남 전역으로 확장해, 창작·산업·투자가 선순환하는 문화경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김상욱 전당장과 차담회를 갖기에 앞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형 문화경제 도시를 목표로 추진된 대한민국 최대 문화 프로젝트”라며 “전당 개관 10주년과 광주·전남 대통합을 앞둔 지금이 새로운 도약의 적기”라고 밝혔다.

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전당을 중심으로 금남로 일대 예술복합단지로 재편하는 ‘더 그레이트 컬처 스트리트(The Great Culture Street)’ 조성이다. 이를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대한민국의사박물관 광주관, 국회도서관 분관 등 3대 국가 문화시설 유지를 추진하고, 평화미술관 건립과 창작 레지던시 조성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당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유치 예정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을 연계한 ‘K-아트 클러스터’를 구축해 세계적 문화 벨트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문화도시 정체성을 강화해 K-콘텐츠 제작과 유통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전당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대형 창작 뮤지컬 제작을 추진하고, 광주비엔날레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를 동시 개최해 세계 3대 비엔날레 도약을 모색한다. 한강 작가를 비롯한남도 문학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 홍보를 위해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 김상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과 차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산을 활용한 ‘메가 컬처 페스티벌’을 통해 공연·전시·문학이 결합된 복합 콘텐츠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재원 마련과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1조 원 규모 문화부흥펀드를 조성해 문화예술 스타트업과 기업에 저리 대출을 지원하

고, 구도심 빈집과 고풍을 매입해 문화공간으로 재생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콘텐츠 대기업 유치와 프로젝트 인센티브 확대, 현재 50% 수준인 국비 지원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1+5 문화수도 비전’을 통해 광

주 중심으로 나주(역사문화), 목포(근간으로 재생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콘텐츠 대기업 유치와 프로젝트 인센티브 확대, 현재 50% 수준인 국비 지원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외연

확대를 위한 특례를 통한 특별시 특별법에 반영하려 했으나 포함되지 못했다”며 “향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 반영하고, 2031년 종료 예정인 법 적용 기간도 연장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외연

## 민주, 광주시의원 15% ‘무경선 공천’ 하나

### 20개 지역구 중 3곳 단수 면접...무투표당선 가능성 고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공천 신청자 면접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일부 선거구에서 경쟁 후보가 없어 ‘무경선 공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민주당 광주시당이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공천신청자 면접 일정’에 따르면 전체 20개 선거구에 62명 공천신청자 가운데 서구 제3·북구 제5·광산구 제5 등 3곳은 단수 면접으로

전행된다.

서구 제3선거구는 고경에 후보가, 북구 제5선거구는 임종국 후보가 각각 단독으로 면접 대상에 올랐고, 광산구 제5선거구 역시 김광란 후보 1명만 신청해 사실상 단수 면접을 통해 민주당 후보를 정한다.

이는 전체 20개 광역의원 선거구 중 15%에서 민주당이 경선 없이 단수 추천(공천)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선거구당 1명만 뽑는 소선거구

후보가 무투표 당선된 바 있다.

반면 3곳을 제외한 선거구에서는 최대 5대 1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예정이다.

서구4·남구1·광산1·광산2 등 4곳이 5파전이고, 동구2·북구2·북구3은 4파전, 서구1·서구2·남구2·남구3·북구1·북구3·광산3은 3파전이 확정됐다. 나머지 3곳(동구1·북구4·광산4)은 2인 및 대결 경선이 진행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 단계부터 단수 지역이 드러나는 만큼 무투표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은 공천신청자 62명을 대상으로 27~28일 개별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서삼석, 민주 최고위원 사퇴...“지방선거 매진”

### “호남발전특별위원장으로 책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사천) 의원이 지난 20일 최고위원을 사퇴했다. 지난해 8월 6일 지명된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199일간의 지도부 활동을 마무리 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월 2일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1인 1표제’와 ‘전략지역 당원 지위 향상’을 위한 지방선거 최고위원 전략지역 우선 지명’이 의결된 만큼, 더 강하고 단단한 민주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일원으로 자신을 지명해준 정청래 당대표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가 강조해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으로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지원에 깊은 고마움을 전하면서, “대표의 뜻과 당원 여러분의 기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송구하다”고 언급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6·3 지방선거 출판기념회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이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개호의 준비완료 - 전남광주특별시를 향한 비전과 구상’ 출판기념회를 열고 초광역 경제권 구상을 공식화했다

### “행정·정치·조정력 모두 갖춰... 정면 돌파”

#### 이개호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초광역 경제권 구상 공식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이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책 비전서 ‘이개호의 준비완료 - 전남광주특별시를 향한 비전과 구상’ 출판기념회를 열고 초광역 경제권 구상을 공식화했다.

행사장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전·현직 시·도지사가 나란히 참석했고, 광주·전남 기초단체장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또 박지원, 신정훈, 주철현, 김문수, 전진숙, 정진욱, 안도걸 국회의원 등이 직접 행사장을 찾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를 포함한 73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영상 축사를 보냈다.

이 의원은 저서에 담긴 4대 권역별 정책 구상을 직접 설명했다. 광주권은 인공지능(AI) 특화도시 조성과 반도체 상생 파운드리 유치로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부권은 석유화학 산업의 선제적 구조 전환과 이차전지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제정비하고, 서부권은 RE100 전용 산업단지과 데이터센터 등을 연계한 미래 에너지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저 개인의 봉납을 넘어 광주·전남이 다시 도약하는 봉납을 열겠다”며 “시·도민 삶의 현장에 희망의 온기가 스며들도록 맨 앞에서 길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이선하 기자 goback@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최근 전남 순천만생태교육문화원에서 열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3.0’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정선 광주교육감, 고향 순천서 출판기념회

#### 시·도민 6000여명 참석...“한 아이도 포기 않겠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21일 오후 2시 자신의 고향인 순천(순천만생태교육문화원)에서 저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3.0’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이 교육감의 방문을 환영하는 순천 시민과 전남·광주 교육계 관계자 등 시·도민 60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주철현(여수시갑) 국회의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박진성 전 순천대학교 총장 등 정·관계 및 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못한 정계 주요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이개호·박범계·박찬대·문정복·이건태·박지혜·양부남·안도걸·조인철·박권택·김문수국회의원 등이 영상 축사를 통해 이 교육감의 교육 철학을 응원하고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이 교육감은 토크콘서트에서 “전남과 광주는 교육으로 연결된 하나의 운명 공동체”임을 역설하며, “유기적인 교육 통합으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호남의 아이들을 글로벌 미래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전남·광주 어디서든 누구나 수준 높은 교육을 받는 기본교육특별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 김인수 기자 jinus@



정철원 담양군수는 22일 담양문화관에서 자신의 삶과 행정 철학을 담은 저서 ‘대나무처럼 살아왔다’ 출판기념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대나무처럼...담양의 희망 지켜가겠다”

#### 정철원 담양군수 출판기념회 대성황

정철원 담양군수는 22일 담양문화회에서 자신의 삶과 행정 철학을 담은 저서 ‘대나무처럼 살아왔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군민과 함께 지난 시간을 되짚으며 지역의 미래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지역 주민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조민호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리를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저서 ‘대나무처럼 살아왔다’에는 평범한 일상 속 태도에서 출발해 군의원의 길을 걷게 됐다.

저서 ‘대나무처럼 살아왔다’에는 평범한 일상 속 태도에서 출발해 군의원의 길을 걷게 됐다.

방석과 대바구니를 팔며 생계를 책임지던 시절 “비가 세지 않는 집에서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소망은 그의 삶을 지탱해 온 원동력이 됐다.

정 군수는 인사말에서 “흔들려도 멈추지 않았던 삶의 기록을 통해 담양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군민 한 분 한 분을 모시는 마음으로 담양의 희망을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철원 군수는 지난 재선거에서 이재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900여표 차이로 누르고 승리하며 조국혁신당 1호 당대표가 됐다. 오는 6·3 지방선거에서도 뒷발 탈환에 도전하는 민주당 절 몸뚱이 다짐은 책의 한 축을 이룬다. 아버지를 일찍 여고고, 어머니가 죽피

이현규 기자 gnnews@